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1.20	↑ 코스닥	813.08
	(+21.35)		(+14.02)
↓ 금리 (연이자율)	3.667	↓ 환율 (원/달러)	1291.60
	(-0.014)		(-5.30)

metro® 경제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생존·ESG경영 위한 필수과제... DX ‘혁신의 트리거’

(디지털 전환) (방아쇠)

‘디지털 전환’ 사활

전세계가 디지털 전환(DX)에 사활을 걸었다. 공장은 물론 창고와 상업 공간, 사무실과 까지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챗 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활용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잡았고, 미래 먹거리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됐다. DX가 ‘혁신의 트리거’가 된 셈이다.

DX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와 사회 구조 등을 혁신하는 것을 뜻한다. 초고속 통신과 사물 인터넷(IoT), AI와 로봇등을 통해 기존 업무를 디지털로 대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무인 점포와 사무 자동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DX는 단순히 사업 효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ESG 경영에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종이를 비롯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복지도 확대할 수 있어서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DX 전환을 지원하며 상생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DX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필수가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화진산업 마스크 제조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디지털 트윈’ 고도화 연내 싱가포르에 ‘HMGICS’ 완공

LG전자·LS그룹, 단순사무 대체 RPA 성공적 도입 생산성 극대화

현대자동차 등은 일찌감치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로봇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모든 사물을 모빌리티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디지털 트윈’을 고도화, 올해말 싱가포르에 혁신센터인 ‘HMGICS’ 완공을 앞두고 있다. LG전자도 창원과 미국 테네시 공장을 완전히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AI를 활용해 사무와 연구 업무까지도 자동화하고 있다. LG전자와 LS그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

룹 등은 최근 단순 사무 업무를 대체할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업계에서도 소재를 연구하는 AI를 활용해 연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X는 미래 먹거리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통신사들은 5G와 함께 DX 솔루션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놨다. LG 유플러스가 KT에 이동통신 가입 점유율을 앞선 것도 B2B 등 사물 회선을 크게 늘렸던 덕분이었다.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SI 업계도 클라우드를 넘어서 DX 솔루션에 힘을 쏟고 있다. LG전자가 광양제철소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성공시키는 등 산업계에서도 DX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상태다.

글로벌 빅테크도 AI로 희비가 갈렸다. 구글과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이, MS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협력하면서 시장을 뒤흔기 시작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DX로 생사가 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사무기기 업계가 대표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침체된 사이, 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BI)은 발빠르게 DX로 체질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시대에서도 사무실을 지킬 수 있었다.

기업들은 DX 역량을 활용해 ‘상생’도 실현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에 참여해 여러 협력사들에 DX를 지원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내년 반도체 업황개선 수출 5.6% 상승 전망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 수출 규모는 유지되는 한편, 정보통신 기기 수요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 수입은 0.7% 감소로 전망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업황 개선, 주요 기업의 감산정책 영향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올해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며 두 자릿수(15.9%)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그간 큰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아세안 지역 수출이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점차 개선되며 수출 회복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경제·산업 전망

반도체 수출은 15.9% 증가하고 수입, 전년 대비 0.7% 줄어든 등 연간 무역흑자 265억 달러 전망

유가와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수입은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와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0.7% 감소로 예상했다.

수출 업황 개선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액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개선 흐름에 따라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내년 무역수지는 연간 265억 달러 수준 흑자가 예상된다.

◆반도체(15.9%)·정보통신(12.7)·바이오헬스(4.6%) 수출 증가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난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한 5047억 달러로 전망됐다. 13대 주력산업 수출액은 2022년 5365억 달러에서 올해 4799억 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주현 “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하라”

금융위-금융지주회장 간담회 “동네·골목상권 붕괴 우려 상환 금리 직접적 낮춰 체감 가능해야”

금융지주사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두고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권의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조1000억원에서 2020년 11조5000억원, 2021년 13조9000억원,

2022년 1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의 황제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금융산업을 국회 입법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황제세는 시장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지주가 내놓는 상생금융방안에 따라 황제세 법안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상생금융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동훈 총선 채비...출마지역·역할의 건 분분 /사진 뉴시스
▲민주노총 의리 여론조사서 10명 중 7명 “노란투법 필요”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국 국민 방문 출국
▲민주,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명백한 잘못...국민·당원께 사과”



▲경기도선관위, 24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설명회 개최 /사진 뉴시스
▲여당 “행정정산명장애, 두 번 발생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할 것”